

## <골프인생 4 단계 - 프로는 배우고 또 배운다 >

골프 인생의 4 단계라는 말이 있다.

제 1 단계는 막 시작한 사람들의 단계인데, 이들의 특징은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를 권한다는 것이다.

제 2 단계는 어느 정도 알게 된 사람들의 단계인데,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제 3 단계는 제법 잘하는 사람들의 단계인데, 이들은 가르치려 하지 않고 만약 누가 물어오면 “잘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제 4 단계는 골프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의 단계인데, 이들의 특징은 누가 물어오면 “나 같은 사람에게서 배우지 말고,

비디오를 보거나 일류 프로에게서 제대로 배우라”고 한다는 것이다.

제 4 단계까지는 아마추어, 그 다음은 프로의 단계라는 것이다.

한때 프로골퍼가 될까 하고 생각한 바 있던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경영대 교수는 으뜸가는 경영전략가로서 한번 강의에

11 만 달러나 받는다. 허버트 사이먼 교수는 행정학 박사이지만 노벨상은 경제학으로 받았다. 참 실력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데 취미는 심리학이어서 필자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카네기 멜론대 심리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외국어는 20 여 개나 한다.

경영학의 시조인 피터 드러커 교수는 지금까지 29 권의 경영학 책을 썼는데 미래를 예측한 것 가운데 틀린 것이 거의 없어서

이 모두가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수준의 프로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언제든지 열심히 더 배우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세계정상에 올라간 프로들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존음을 아껴가며 연구하고 더 배우려고 한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아마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작년 미국의 주요 대학 총장 협의회인 켈로그위원회는 앞으로 미국

대학에서는 가르침(teaching) 대신 배움(learning)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결의했다.

'나는 좋은 학교도 다녔고 많이 알므로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처: '프로는 배우고 또 배운다' 중에서, 동아일보>

## ゴルフ人生の4段階 - プロは学んでまた学ぶ

ゴルフ人生の4段階という言葉がある。

第1段階はちょうど始めた人々の段階なので、これらの特徴は会う人ごとにゴルフを勧めるというのだ。

第2段階はある程度分かるようになった人々の段階なので、かれらは会う人ごとにゴルフを教えようと思うというのだ。

第3段階は結構お上手な人々の段階なので、かれらは教えようと思わないで、もし誰が問って来れば“よく分からないが私はこのように思う”と答えるというのだ。

第4段階はゴルフ実力がすごい人々の段階なので、かれらの特徴は誰が問って来れば“私のような人から学ばずにビデオを見るとか一流プロからまともに学びなさい”と言うというのだ。

第4段階まではアマチュア、その次はプロの段階というのだ。

ひとときプロゴルファーになろうかと思った事があったマイケルポーターハーバード大経営大教授は優秀な経営戦略家として一度の講義に11万ドルももらう。ホボトサイモン教授は行政学博士だがノーベル賞は経済学で受けた。本当の実力はコンピューターサイエンスにあるので趣味は心理学なので筆者が彼に会いに行った時カーネギーメロン大心理学教授として在職していた。外国語は20余個もする。

経営学の始祖であるピータードロコ教授は今まで29冊の経営学の本を書いたが未来を予測した中で違ったのがほとんどなくて、この全てが今でもベストセラーになっている。こんな人々が世界水準のプロだ。

かれらの共通点はいつでも熱心にもっと学ぼうと思うという事実だ。世界トップに上がったプロたちはどの分野を問わずそれこそ一瞬の時間でも研究してもっと学ぼうと思う。

大学では教え (teaching) の代わりに学問 (learning) という言葉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決意した。

‘私は良い学校も通ったし、たくさん分かるので人を教えることができる’ と思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のだ。

<出处: ‘プロは学んでまた学ぶ’ の中で、東亜日報>

<http://www.k-kankyo.co.jp>